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2억원 투입

정읍시는 올해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22억원을 투입하고 788대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734대(배출가스 5등급 361대, 4등급 363대, 건설기계 1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8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45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소상공인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부안군은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점수 5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청년 소상공인(18~45세)은 최대 5000만원까지로 보증 기간은 1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 또는 8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도 지원되며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3% 청년 소상공인은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안지점과 각 협약 은행(농협·전북은행)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시작됐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보증드림' 앱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작년 외지인 방문객 1177만명 돌파... 지역 소비액 2.7% 증가·지역 상권 활기 견인

지난해 1,177만명의 외지인 방문객이 정읍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인 관광 소비 위축 추세 속에서도 지역 내 총소비액을 2.7% 끌어올리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가 통신사와 카드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외지인 방문객은 총 1,177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7%(약 53만 명) 늘어난 수치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정읍의 전체적인 관광 수요 상승을 든든하게 이끈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외지인 방문객의 발길은 가을철에 더욱 두드러졌다. 내장산 단풍

이 절정에 달하는 10월과 11월에만 외지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45만 명(19.2%) 뛰어올라 대한민국 대표 '단풍 성지'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방문객들의 유입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45.2%, 광주 11.0%로 인접 지역의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경기 지역도 12.4%를 기록하며 수도권 방문객의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외지인들의 활발한 방문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직결됐다. 지난해 정읍시 지역 내 총소비액은 4,460억원으로 2024년(4,342억원) 대비 118억원(2.7%) 증가했다. 같

은 기간 전국의 관광 소비액이 1.7% 감소하며 위축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성과다. 세부적으로는 여행업 분야에서 소비액이 70억원 증가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정읍시가 사계절 쉼 없이 발길이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통신·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지역 생활 인구 증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

기존 유휴시설 활용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고창군이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개관하며 권역별 농업 인력지원 체계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일 고창군은 전날(5일) 오후 2시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서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원 및 군의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관식'을 열었다.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건립된 남부권 농업근로자 전용 기숙사에 이은 두 번째 권역 거점시설이다.

중부권 기숙사는 총사업비 6억9,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2024년 상반기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유휴 건물 1개동 리모델링을 시작한 뒤, 추가로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3개

동으로 확대했다. 2026년 2월 최종 리모델링을 완료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시설 규모는 주1동(56평, 6개실)과 주2동(27평, 5개실), 주3동(40평)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1동은 여성근로자 숙소로 약 20명, 주2동은 남성근로자 숙소로 약 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3동은 공동취사장과 식당, 세탁실, 관리실 등을 갖춘 공용공간으로 조성됐다.

총 운영계획 인원은 30명이며, 지난 2월 24일 캄보디아 근로자 28명이 우선 입국해 농가일손을 돕고 있다. 전원 입소가 완료되면 공용·무장·야산 권역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중부권 거점시설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35년의 기다림... '부안을 살려주세요'

부안군민들, 김민석 총리 새만금 방문에 피켓 시위

3만167명 작성 서명부, 정부·새만금개발청에 전달

새만금 개발로 35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부안군민들이 마침내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부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추진위원 등 20여명은 지난 5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부안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날 시위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추진위원들은 '부안을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차례로 시위에 참여하며 새만금 개발의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 온 부안군의 현실을 알렸다. 이들은 현장에서 부안

군민 4만7,000여명 가운데 3만,167명이 참여해 작성한 서명부를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새만금 개발의 실질적인 혜택이 부안 지역에도 돌아가야 한다는 군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겼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될 당시 장미빛 미래를 약속받으며 지난 35년을 견뎌왔다"며 "그러나 지금 현실은 대규모 국가사업과 개발 이익이 대부분 군산과 김제로 향했고, 새만금 부안 지역에는 허허벌판과 깊은 상처만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라도 새만금 부안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며 "RE100 국가산단을 부안에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민입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도 배치됐다. 시위가 시작되자 군산경찰서는 현장 주변에 경찰관 20여 명을 배치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그러나 시위는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장의 피켓을 들고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속에는 35년 동안 이어진 부안군민들의 기다림과 상실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은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전북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사업"이라며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부안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0세부터 100세까지 잘사는 정읍 만들겠다"

이상길 정읍시장 예비후보, '현장 중심' 선거운동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이상길(현 정읍시의회 재선 시의원) 예비후보가 이른 아침 길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태인면, 입암면, 연지동, 농소동 등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주민들과 마을의 생활 현안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의 소통 행보라는 평가다.

또한 이상길 예비후보는 '365 이동시장실' 운영 등 주요 공약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등 복지 현장도 직접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공공행사에도 참석해 주민들과 면담하며 지역 여론을 경청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행력과 윤준병 국회의원의 현장 해결 능력을 본받아, 반드시 정읍을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정읍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 유휴지 소득화 프로젝트 추진"

안수용 정읍시장 예비후보

안수용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농촌 유휴지를 활용한 수익형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농촌 유휴지 소득화 프로젝트(정읍 시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읍의 유휴 농지를 방치하는 대신, 시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유휴 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방치되면서 지역경제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소득 외 안정적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안 예비후보는 하천부지 등 저활용 농지를 집단화해 태양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재산화된 사업 수익의 일부를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사업은 취임 후 2~3년 내 1단계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4년 차부터 본격 배당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사업비는 100~300억원 규모로, 국·도·비 및 공공기관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1MW 기준 약 1,700~2,200장의 패널이 필요하며, 총공사는 약 18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연 발전량은 약 1,226MWh(이용률 14% 가정), 연 순수익은 약 2.1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은 △유휴지 집단화 및 공공재산화 △태양광 발전 및 스마트팜·특화작물 단지 조성 △농촌체험·치유농업 결합 모델 구축 △가칭 '정읍도시·농촌자산공사' 설립을 통한 통합 수익 관리 등이다. 순수익의 일정 비율은 시민에게 배당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